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1993. 12

許 文 寧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목 차

I. 서 론	1
II. 최근 북한의 변화 동향과 그 의미	1
1. 인사 개편	1
가. 김영주의 권력일선 재등장	2
나. 온건·개방지향적 테크노크라트의 퇴조와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약진	3
다. 군부의 부상	5
라. 조총련 출신 김병식의 파격적 발탁	6
2. 정책 변화	8
가. 3차 7개년계획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전략적 방침’의 채택	8
나.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강조	9
3. 법·제도 변화	10
가. 각종 법안 채택	10
나. 국가검열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중앙선거위원회의 명칭 및 소속의 변경	11
III. 결 론	12

표 1: 북한의 최근 보직 변동 현황	13
부록 1: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수행정형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93. 12. 9. 06:10, 중방)	15
부록 2: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대회에서 ‘민족문화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 할데 대하여’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대의원의 보고	32

I. 서 론

- 북한은 1993년 12월 8일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12월 9~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이를 통해 일련의 인사개편과 제3차 7개년계획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발전전략을 채택하였음.
- 본 보고서는 위의 양대 회의를 분석함으로써, 이후 북한체제 및 정책의 변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첫째, 양대 회의 결정에 따른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 현황을 살펴볼 것임.
 - 둘째, 양대 회의에서 채택한 정책의 변화 현황을 살펴볼 것임.
 - 셋째, 최근 북한에서 취한 기구의 명칭 및 위상의 변화 현황을 살펴볼 것임.

II. 최근 북한의 변화 동향과 그 의미

1. 인사 개편

- 이번 양대 회의의 결정에 따른 인사 개편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표 1 참조).

가. 김영주의 권력일선 재등장

- 북한은 18년만에 김영주를 공식행사(7. 26)에 ‘전 정무원 부총리’(권력 순위 10위)라는 호칭하에 복귀시킨 후, 당 중앙위 전원회의(12. 8)를 통해 당 중앙위 위원 및 정치국 위원(권력순위 7위)으로 보선하였고, 최고인민회의(12. 11)를 통해 국가 부주석으로 선거하였음.”
-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의도는 다중적인 것으로서, 하나는 체제수호를 위한 내부결속용으로 분석됨.
 - 북한은 1990년대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와 이에 따른 3대난(식량난·생필품난·외화난)과 핵무기개발 의혹에 따른 국제적 압력에 처하여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우리식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을 주창하여 왔음.
 - 그러나 삼촌인 김영주의 숙청과 계모 김성애의 퇴조, 이복동생 김평일의 거세 등의 상황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상대적으로 인민의 심정적 동조를 얻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김영주

1) 노동당 정치국 위원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 휴지기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게 되어 있으며(당 규약 제25조), 북한의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외국대사 신임장 접수, 순방외교, 주요행사시 보고)을 돕게 되어 있음(개정헌법 제110조).

의 복권을 통하여 가족단합을 인민에게 과시함으로써 ‘사회주의 대가정론’, ‘혁명적 대가정론’의 모범적 실천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른 하나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를 위한 ‘후견인’용으로 보임.
 - 현재 김정일 승계체제는 아직 취약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이유는 김정일의 정치역량 미흡과 군부의 이반 가능성의 조짐 때문임.
 - 따라서 북한은 1960년대에 조직지도 부분을 장악한 경험이 있는 김영주를 재등용시킴으로써, 이를 보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나. 온건·개방지향적 테크노크라트의 퇴조와 보수적 이데올로그의 약진

- 북한은 두 회의를 통하여 경제적 개방정책 및 대남·대외정책을 이끌어 오던 김달현·김용순·박남기·최태복·한성룡·정신혁을 해임 또는 전보함. 반면에 양형섭·홍석형·김병식·류미영·주성일·김석형·황장엽·김국훈·김정숙·백남준 등 이데올로기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물들을 대거 중용함.
- 특히 경제난의 해결을 위해 정무원 출신의 경제일꾼들 대신 당 및 군부 출신의 경제일꾼들에게 정책계획 및 집행능력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이 이러한 인사조치를 단행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 기간

여러 정책들의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 보임.

— 북한은 제3차 7개년 인민경제계획(1987~1993)의 실패를 인민에게 책임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었음. 또한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는 완전히 동결되었고 경제협력 또한 전혀 진척이 없었는 바, 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 나아가 외교부가 전면에서 미국과 공식적 협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인민외교를 담당해야 할 국제부는 전혀 성과없이 국제적 고립만을 자초하고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비록 김정일이 모든 대내·외정책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책임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물은 것으로 분석됨.

○ 다른 하나는 북한이 제한적 대외경제개방을 통한 체제발전 전략을 확대하기 위해 현 정치·경제체제의 지속과 더불어 주체적 자립경제정책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임.

—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식량난, 생필품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외경제개방 및 협력이 더욱 필요하나, 이로 인한 다원주의 사조 및 정보의 유포가 체제동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딜레마에 처해 있음.

— 따라서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제

한적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경제난을 해결 하되, 체제운영적 차원에서는 주체사상에 근거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 군부의 부상

- 당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에 신규 보선된 17명 중 9명이 현역 군 인임.
 - 당 중앙위 위원: 현철해(상장) · 김이창(대장) · 남상락(상장) · 한인구(상장) · 이영철(소장)
 -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정창열(상장) · 백상호(중장) · 이태철(중장) · 박재경(중장)
- 이는 김정일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차원과 인민무 력부 산하 중공업 중심의 軍 經濟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 난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임.
 - 예컨대 북한은 1992년 김정일을 원수에 승진시킨(4. 20) 후, 군 창건기념일(4. 25)에 664명의 장성을 일제급 특진시키고 장교들의 봉급을 평균 40% 인상하였고, 1993년 김정일을 국 방위원장에 추대한(4. 9) 후, 전승 40주년(7. 27)을 기념하여 원로 군관 99명(중장 14명, 소장 8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김 정일 명의로 행하였음.
 - 김정일은 김일성과 달리 항일무장투쟁경력과 조선인민군 복 무경력이 전혀 없어 원로 군인들 및 연대장급의 심정적 지지

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군부의 지지유도 차원에서 군부회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북한은 외화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기수출(스커드 미사일 등) 부문을 제외한 여타 부문은 국제경쟁력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북한이 무기수출을 지속함으로써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

라. 조총련 출신 김병식의 파격적 발탁²⁾

- 북한은 이계백의 사망(1993. 7) 이후 사회민주당 위원장직을 수행해 온 김병식을 전격적으로 국가 부주석직에 김영주와 더불어 선거함.
- 북한이 김병식을 중용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핵무기개발 의혹에 따른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와 더불어 일본의 조총련 송금라인 제한조치가 시행될 경우 북한의 외화난은 더욱 가중될 것인 바, 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조총련계 인사를 북한의 국가 고위직에 임명함으로써 조총련 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지의 지속적 확보와 더불어 사

2) 이제까지 조총련 출신으로 행정부에서 최고직위에 올라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부 부장인 장철뿐임.

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대북송금(연평균 800억 엔)지원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른 하나는 김병식의 과거 경력과 현재 직함을 동시에 살려 남북대화 및 대외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김병식은 남북적십자회담 자문위원(1972)과 「남조선연구소」 고문(1982~1992)으로 근무하였는 바, 향후 남북대화에 있어 특사 등으로 나올 가능성과 더불어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제정당·사회단체 협상회의에 있어 주도 인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국가 부주석 및 사회민주당 위원장의 자격으로 순방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노동당 1당독재 이미지로 경색된 북한의 대서방관계를 인민외교 차원에서 돌파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이번 인사 개편을 통해 김영주를 복권시킴으로써 김일성 체제 유지와 김정일 승계체제의 공고화를 추진하는 한편, 당료 및 군출신 경제전문가들을 중용함으로써 주체의 자립경제를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온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지속하는 동시에, 김영주의 대내 통제능력과 김병식의 대일 및 조총련 교섭능력을 활용하여 핵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됨.

2. 정책 변화

- 이번 양대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가. 3차 7개년계획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전략적 방침'의 채택

- 북한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강성산 총리의 보고를 통해 “3차 7개년계획을 원래 예견한대로 수행할 수 없게”되었음을 인정하였음.
 - 그 원인으로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세계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에 따른 경험과 무역의 부진 및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의 반사회주의적 공세’의 대응에 따른 경제력의 방위력 강화에로의 전환을 제시함.
 - 북한은 3차 7개년계획의 실패 원인이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한계 또는 주체경제의 정책적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국제환경의 변화와 ‘원썬들의 침략 책동’ 등 외부적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함.
- 북한은 앞으로 2~3년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는 한편, 이 기간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추진해 나갈 ‘전략적 방침’을 채택함.
 -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부문’에

계속 큰 힘을 넣을 것임도 천명함.

- 이는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3대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인 것인 바, 농업기술혁명과 주체농법을 통해 식량난을 해결하고, 경공업혁명을 통해 생필품난을 해결하며, 대외무역활성화를 통하여 외화난을 해결함으로써,
- 단기적으로 인민의 통합과 체제강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김일성 체제 유지 및 김정일 승계체제 공고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요컨대 북한은 향후 2~3년간 체제의 정치·경제적 변화없이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1996년 이후 본격적인 체제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분석됨.

나.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강조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기남 대의원(당 선전비서 및 선전선동부장)을 통해 ‘민족문화 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를 강조하였음.
- 북한은 “민족문화유산 계승문제를 바로 풀어나가는 것은 ... 민족적 화합을 이룩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임을 주장하고,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에 있어서 ‘주체적 입장’고수와 더불어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침투 방지’에 주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한편, 9개항의 ‘결정’을 채택함.

○ 북한의 의도는 대내 통합 제고 및 대남 절대적 정통성 우위 확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단군릉 발굴 보고(10. 2)」를 통해 신화적 인물로 간주되었던 단군이 실재했던 인물로서 평양 강동군에 5011년된 그 유골과 묘소가 있음을 주장했음.

— 그 외에 이조실록과 팔만대장경을 번역하는 한편 수많은 유적들을 원상복구 재건하였음.

— 이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인해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절대적 정통성이 상대화되었고, 각종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식 사회주의’ 구호의 이미지가 퇴색하자, 평양을 ‘인류의 발상지, 민족문화의 중심지, 조선민족의 성지’로 부각시켰던 것임.

○ 요컨대 북한은 민족적·역사적 정통성이 북한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대내적으로는 인민통합을 이루는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절대적 정통성을 중심으로 한 ‘전민족대단결’을 표방함으로써 최대한으로는 북한 중심의 통일, 최소한으로는 현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됨.

3. 법·제도 변화

가. 각종 법안 채택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건설법」을 채택하였으며, 최고인민회

의 상설회의의 '결정'들인 「국장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수정안」, 「세관법 수정안」 등을 승인·채택하였음.

— 이로 보건대 북한은 제한적이거나 이제까지 추진해온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나. 국가검열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중앙선거위원회의 명칭 및 소속의 변경

- 국가검열위원회는 지난 11월 중앙인민위원회 산하로 환원됨.
 - 북한이 대내통제를 위하여 국가검열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동 기관은 1990년 제9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정무원 산하 부서로 소속이 변경되었음.
- 국가안전보위부는 1973년 창설 당시 「국가정치보위부」로 출발하였으며, 1982년 이후 국가보위부로 명명되다가, 최근 현재의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음.
 -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일 친위조직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임.
- 중앙선거위원회는 「중앙선거지도위원회」에서 '지도'를 삭제함으로써 형식적이거나 민주성을 확보하려 함.
- 요컨대 북한은 제도적 민주성을 대내외적으로 시현하는 가운데,

대내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Ⅲ. 결 론

- 북한은 현재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처하여 김일성 체제의 유지 및 김정일 승계체제의 공고화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에 부심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북한은 당면과제인 경제난(식량난, 생필품난, 외화난)해결과 핵무기개발에 따른 국제압력 해소,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 이에 대처방안으로서 북한은,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전통성 강조 그리고 경제난 해결을 통해 체제결속과 주민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1993년까지 법적·제도적 정비를 완료한 후 1994년에는 제한적 경제개방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됨.
- 요컨대 북한은 김일성 체제의 유지와 김정일 승계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주체적 대외개방’ 즉 ‘대내단속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표 1: 북한의 최근 보직 변동 현황

(1993. 12. 15 현재)

이름	기관	당(서열)	중앙인민 위원회 및 행정기관	최고인민 회의	현직(전직)	기타특징	친인척 관계
탈 락 해 임	김용순(58)	정치국 후보위원					김일성의 전처, 김정숙 의 동생 김일성5촌 조카사위
	김달현(53)	정치국 후보위원	부총리및 국가계획 위원장				
	한성룡(66)		중앙인민 위 위원		당 공업당비서		
	정신혁			상설회의 의원	조평통부위원장		
	박남기(65)	당비서 (추정)		예산위 위원장	평양시행정경제 위원장		
	최태복			"	당교육담당비서 (당 국제담당 비서)		
승 진 보 임	김영주(71)	정치국 위원(7)					김일성 동생 김일성고종 사촌, 김신숙 의 남편
	양형섭(70)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평통 부위원장	강성산계열	
	홍석형	정치국 후보위원	국가계획 위원장		(김책제철소 책임비서)		
	김병식(74)		부주석		사민당위원장 (한덕수의매제)	전조총련 제1부의장	
	류미영			상설회의 의원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최덕신부인	
	주성일			"	직업총동맹 위원장		
	김석형			"	사회과학원장		

표 1 계속

한성룡(66)		예산위 위원장	당공업담당비서		
황장엽(68)	당국제담당 비서(추정)	외교위 위원장	(당사상 담당비서)	주체사상 이론가	김일성 조카사위
김국훈		법제위 위원	인민경제대학 총장		
김정숙		외교위 위원	민주조선책임 주필(허담의처)		
백남준		통일정책 위 위원	조평통서기국장, 범민련부의장		
현철해	당중앙위 위원		군 상장		
김이창	"		군 대장		
남상락	"		군 상장		
한인구	"		군 상장		
채희정	"		최고인민회의 예산부위원장		
이영철	"		군소장	'73대의경 제과학부 부부장	
최성숙	"		농근맹부위원장	농업경제	
주성일	"			기계공업	
정창열	당중앙위 후보위원		군 상장	건설	김일성의 전처, 김정숙 의 동생
백상호	"		군 중장		
이태철	"		군 중장		
박재경	"		군 중장		
이동춘	"			전기, 석탄	
곽범기	"			공작기계	
박원형	"			자원개발	

부록 1: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수행정형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93. 12. 9. 06:10, 중방)

역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시작한때로부터 일곱해가 지나갔다.

이 7개년계획기간은 우리당의 영도밑에 우리인민이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역사에 찬란히 빛날 위훈의 탑을 높이 쌓아올린 위대한 창조와 건설의 시기이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그 불패의 위력과 우월성을 과시한 긍지높은 투쟁의 시기이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는 제3차 7개년계획이 끝난것과 관련하여 그 수행정형을 총화하고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우리당은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에 따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내세웠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왔다.

제3차 7개년계획은 우리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인민의 지향에 맞게 정확히 작성되고 조국의 앞날에 새로운 휘황한 전망을 펼쳐놓은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었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

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위대한 목표였다.

우리당은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침을 뚜렷히 밝히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새로운 경제건설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으로 전체인민을 조직동원하였다.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당의 방침은 온나라 전체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새전망계획의 실행에 들어선 첫시기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앙양을 가져왔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우리당과 우리인민의 투쟁은 대내외정세가 가장 복잡하고 첨예한 시기에 준엄한 시련과 난관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이전소련과 동구라파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세계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의 반사회주의적 공세는 유례없이 격화되었다. 세계적인 정세파동으로 우리혁명의 국제적 환경은 급변하였다. 세계 사회주의시장이 붕괴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관계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이어 일어난 엄중한 국제적 사변들과 복잡한 사태들은 우리혁명과 건설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커다란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였다.

여러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 사회주의시장의 붕괴로 이나라들과 맺었던 장기 또는 단기무역협정들이 형클어지고 그 이행이 거의 중단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이나라들 사이에 전통적으로 진행되

어은 경제협조와 무역거래들이 부진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건설에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전반적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을 조절할 수 없게 하였으며 제3차 7개년 계획을 원래 예견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한편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우리공화국에 대한 원썬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과 발악적 공세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더욱 침예화되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자 우리공화국을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으며 우리나라를 고립질식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을 말살해 보려고 정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현대적인 전쟁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우리공화국을 불의에 선제 타격하기 위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벌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켜온 미제와 남조선피로도당은 우리 인민들과 세계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더욱 큰규모로 강행하여 정세를 극도로 침예화시켰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는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단호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반도에서 새전쟁의 위험이 더욱 증대되어가는 조건에서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많은것을 국방에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 당은 변천된 국제적 환경과 날로 첨예화되어가는 정세를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제3차 7개년계획에 예견하였던 경제성장속도를 조절하고 경제규모를 줄이면서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혁명적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은 특히 경공업소비재생산에 힘을 넣어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중공업부문에서는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 인민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였다.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새로운 혁명적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무비의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우리인민은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확신성있게 걸어왔으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억 세계 싸워나아갔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과 생활력으로 하여 제3차 7개년계획기간 격변하는 정세와 중첩되는 난관속에서도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국제적 사변들과 우리나라에 조성된 첨예한 정세로 인하여 제3차 7개년계획에 예견하였던 공업생산의 총규모와 전력 강철 화학 섬유를 비롯한 일부중요지표들의 계획은 미달하였으나 사회주의건

설의 모든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었다.

생활은 우리 당이 취한 혁명적 조치가 우리혁명건설의 근본이익에 전적으로 맞고 급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장 정당하고 현명한 조치였다는 것을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조성된 준엄한 정세와 엄혹한 시련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인민의 무한한 충실성과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 우리나라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불패의 생활력은 더욱 힘있게 증시되었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 인민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경제적 물질적 토대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현제적 기술로 장비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80년대 속도에 이어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거세찬 불길속에서 생산의 높은 장성이 이룩되고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가 더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다.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에 공업부문이 빨리 발전하였으며 주체공업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1987-1993 사이에 공업생산은 2.5배로 늘어났으며, 공업생산의 년평균 증가속도는 5.6%에 이르렀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

에 따라 계획수행기간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앞세우고 금속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돌려져 나라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질적으로 공고화 되었다.

전력공업부문에선 태천발전소, 위원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남강발전소와 갑문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수력 및 화력발전소들과 수많은 중소규모 발전소들이 새로 건설되고 금강산발전소, 영원발전소, 금야강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들과 12월화력발전소, 해주화력발전소 건설이 적극 추진되었으며, 새로운 동력자원을 개발 이용하는 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1993년에 전력생산은 1986년에 비하여 1.3배로 늘어났으며, 우리의 전력공업은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고 자체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는 자립적인 동력기지로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안주, 순천, 북창지구에 대규모 탄광들과 검덕광업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단천, 양강도지구의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지구들에 새탄광 광산들과 갱들을 수많이 개발하였으며, 우리나라 지형조건에 맞게 채취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여 탄광 광산들의 장비수준을 훨씬 높이게 되었다.

계획수행기간 석탄생산은 1.4배, 유색금속광물생산은 1.6배로 늘어나고 나라의 원료, 연료기지가 확대 강화되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금속공업이 발전하고, 그 주체성과 자립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계획수행기간 강철생산은 1.3배로 늘어났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우리나라 연료에 의한 야금법이 더욱 완성되고 주체적인 철생산기지들이 현대화되었으며,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제2단계확장공사와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능력확장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고압관, 불수강관생산기지들이 새로 꾸려짐으로써 우리의 금속공업은 부문구조가 완비되고, 모든 부문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자립적인 공업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흑색금속공업의 발전과 함께 제련소들의 기술이 적극 추진되고 단천제련소가 새로 조업함으로써 유색금속생산 능력이 훨씬 늘어났으며, 단천마그네샤공장, 동흥청년광업종합기업소, 룡량광산이 현대적으로 확장되어, 마그네샤크링카를 비롯한 내화물 생산기지가 더욱 확대 강화되었다.

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기계공업의 모든부문이 빨리 발전하였으며, 기계설비의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가 힘있게 추진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4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봇트화, 전자계산기화 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희천공작기계연합기업소 능력확장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4월 3일 공작기계연합기업소에 현대적인 숫자조정공작기계생산기지가 꾸려져 공작기계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와함께 자동차기반생산기지과 유압기구생산기지, 전기기기생산 기지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생산기지들이 새로 더욱 건설되어 기계공업의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질적으로 공고화되었다. 우리의 기계공업은 짧은 기간에 만톤프레스를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로 훌륭히 만들어내고 5월 18일 대형단조공장의 조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그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대자연개조사업에 요구되는 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였다. 전자자동화공업이 빨리 발전하여 이미 마련된 전자 및 자동화요소 생산기지들이 정비 보강되고 새로 집적회로와 전자계산기 조정장치를 비롯한 현대적인 전자 및 자동화요소 생산기지과 전자일용품 생산기지가 꾸려짐으로써 전자자동화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한층더 강화되었다.

화학공업발전에 더욱 큰힘이 돌려져 화학비료와 화학섬유를 비롯한 화학제품 생산이 더욱 늘어났다.

계획수행기간 주체적이며 종합적인 대규모 화학공업기지인 순천비날론 연합기업소 제1단계 공사가 완공되어 조업하고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섬유생산기지들이 더욱 정비 보강되었으며 기초화학제품생산기지들이 새로 더 꾸려져 화학섬유와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게 되었다.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설비의 대형화, 현대화가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이미 있는 화학비료공장들과 농약생산기지들이 현대적으로 재건되었으며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광물질 비료생산

기지들이 새로 일떠서고 사리원지구에 자체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는 카리비료공업이 창설됨으로써 화학비료생산은 1.5배로 늘어나고 그 질적 구성이 더욱 개선되었으며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완성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경공업발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경공업혁명을 다그칠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6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공업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만부하로 돌리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하여 구성, 사리원, 개성방직공장들에서 방직설비들의 현대화, 고속도화가 실현되고 새로운 방직설비들이 증설되어 천 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났으며 뜨게화생산기지들이 개건확장되어 옷구성에서 뜨게옷비중이 높아지고 피복공업이 더욱 발전하였다.

신발생산이 늘어나고 식료공업과 일용품공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 중앙공업과 증소규모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에 따라 지방산업공장들이 현대화되고 지방원료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지방공업생산은 1.7배로 늘어났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8월 3일 인민소비품 분공장, 직장, 작업반들을 더 많이 내오고 간이작업반, 부업반들을 널리 조직하여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을 균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

임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이 더욱 빨리 늘어나게 되었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 농촌경리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었다.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농촌에서 사상·기술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사회주의 협동경리제도가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우리 당의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고 녹색혁명에서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어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하였다.

주체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농촌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수리화와 전기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고 기계화, 화학화에서 전환을 가져왔다.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인 서해갑문이 건설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계획수행기간 서해갑문, 신천, 강령, 웅진물길, 서해갑문 장수 역수물길, 서해갑문 온천물길과 예성장 연백벌물길, 남강미륵불물길, 태천발전소 운전, 정주, 광산물길을 비롯한 2천리의 큰물길이 건설되어 대동강과 예성장, 압록강과 대령강을 하나의 대유회환식 관개망으로 연결시키고 서부지구 곡창지대의 모든 논밭들에 관개수가 넘치게 하는 거창한 자연개조사업이 승리적으로 완성되었다.

계획수행기간 2천리물길을 포함하여 연 2만 6천리의 물길들과 1만 2,400여개의 양수장, 190여개의 저수지, 1만 6,000여개의 지하수 시설들이 새로 더 건설되어 논밭 관개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됨으

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발전된 관개의 나라, 수리화의 모범의 나라로 되었다.

농촌에 트랙토르와 자동차, 모내는 기계, 모뜨는 기계, 논두렁짓는기계, 수확기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지대적 조건과 농업생산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수많이 생산 공급됨으로써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는 논밭갈이로부터 씨뿌리기,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이르는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계획수행기간 농촌경리에 대한 화학비료 공급량은 1.4배로 늘어나고 비료의 질적구성이 개선되었으며 살충, 살균제와 살초제공급량이 훨씬 늘어났다.

농촌경리발전에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은 농업을 공업화하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협동적 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고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으로 된다.

수산업의 발전에도 큰 힘이 들려졌다.

계획수행기간 수산부문에서 3,750톤급 이상의 대형 선미뜨랄선을 비롯하여 물고기잡이배들이 1,100여척이 더 늘어나고 물고기잡이배들과 수산물가공시설들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어 수산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바닷가양식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 전국적으로 힘있게 벌

어져 바닷가양식 면적과 그 생산량이 훨씬 늘어났다.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부문이 더욱 발전하였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 철도의 현대화가 다그쳐지고 여러 곳에 새 철길이 건설되어 철도수송능력이 더욱 늘어났다. 우리 청년건설자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북부내륙선 철도가 새로 건설되었으며 연 800km구간의 철도가 더 전기화되어 우리나라에서 철도본선전기화는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당의 철도중량화방침이 구현되어 많은 구간의 철길이 중량화되고 현대적인 전기기관차와 대형중량화차를 비롯한 철도운전기계가 늘어났으며 화물역과 전용선들의 기술장비가 더욱 개선되었다.

당의 수송혁명방침에 따라 집중수송, 집합수송이 더욱 강화되고 철도운영의 자동화, 전자계산기화가 적극 추진되었다.

육해운 부문에서는 계획수행기간 평양-개성사이 평양-강동사이, 원산-금강산 사이에 현대적인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여러 중요도로들의 확장 및 포장공사가 진행되었으며 흥남항을 비롯한 무역항들이 개건확장되어 항들의 통과능력이 더욱 늘어났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 수백억원의 기본건설투자로 방대한 건설사업이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건설전투가 벌어져 동력기지, 금속공업기지, 화학공업기지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이 기간에 공업부문에서만도 1만 1,000여개 대상이 건설되어 새로 조업하였으며 농촌경리의 수리

화와 간척지건설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와 응대한 건설구상에 따라 혁명의 수도 평양시에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탑과 3대혁명전시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5월1일경기장, 청춘거리경기관들을 비롯한 노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전국 각지에 3,200여개의 교육·문화·보건시설들과 여러 가지 공사시설들이 건설되었다.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당의 구상이 빛나게 구현되어 계획수행기간 평양시에 웅장 화려한 광복거리와 통일거리가 일떠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인민생활이 높아졌으며 우리 인민은 더욱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계획수행기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와 사회보장자들의 사회보장연금,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들의 장학금을 전반적으로 40%이상 대폭 올리며 협동농민들의 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농업생산물의 수매가격을 훨씬 높이는 획기적인 인민적 시책이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경제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체계적으로 늘어나고 노동자 사무원들과 협동농민들,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다같이 고르롭게 향상되었다.

가장 우월한 무료의무교육제와 전반적이고 완전한 무상치료제, 선진적인 사회보장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공산주의적 시책들이 더욱 원만히 실시되었다. 위대한 당이 영도하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사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사상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가장 공고한 사회이며 국가가 전체인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고히 보장하고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는 가장 인민적인 사회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그 어떤 사회정치적 불안도 실업과 빈궁의 위협도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도 모르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 있으며 인민들속에서 공산주의적 미풍이 높이 발양되고 온사회에 혁명적 기상과 정치적 기백이 차넘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길만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며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신심과 낙관에 넘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고 있다.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의 결과이며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가져다 준 고귀한 열매이다. 이 빛나는 성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적 봉쇄나 체계적인 정세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비할 바 없는 우월성과 위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되며 자립적인 토대위에서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경제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이룩된 성과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 인민을 새로운 위훈에로 불러일으킬 것이며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남조선인민들과 사회주의를 위한 새로운 투쟁에 나서고 있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더욱 큰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정치·경제·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의 융성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새활을 담보할 수 있는 더욱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인민은 당의 영도밑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 수 없는 필승불패의 것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놓은데 대하여 높은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한층 더 높이 발양시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당은 변천된 환경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2,3년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로 나갈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혁명적 경제전략에 따라 농업과 경공업 대

외무역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이고 이 부문의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며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농촌기술혁명을 완성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며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역사적 과업을 빛나게 실현할 것이다.

경공업혁명을 다그쳐 경공업공장들을 기술적으로 재건확장하고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화학섬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경공업원료생산을 강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섬유제품과 일용품, 식료가공품생산을 훨씬 늘이며 소비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할 것이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부문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연료동력문제와 수송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경제건설을 다그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가까운 연간에 모든 사람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숙망을 실현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놓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는 의연히 준엄하고 복잡하며 우

리 인민의 투쟁은 어렵고 간고하지만 우리 민족은 휘황하고 낙관적이며 우리의 힘은 무진장하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세련된 영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뭉친 인민대중의 힘이 있다. 우리는 어떤 정황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먹고 입고, 살아나갈 수 있는 위력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와 풍부한 자원부원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그 어떤 정치사상적 공세에도 경제적 봉쇄에도 군사적 위협도 우리 인민을 놀래울 수 없으며 당의 영도 따라 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영도에서 자기들의 밝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으며 당을 믿고 따르며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인민대중의 결의는 확고하며 대중의 혁명적 기세는 충천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영도따라 강인한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 나갈 것이다.

부록 2: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대회에서 ‘민족문화 유산을 옹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대의원의 보고

대의원동지들,

오늘 우리는 단군능이 발굴되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되찾은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7천만 온겨례가 끝없는 기쁨에 넘쳐있는 가운데 민족문화 유산을 옹게 계승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본 최고인민회의 의제로 상정하고 토의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와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민족문화 유산 정책에 의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민족문화 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이는데서 실로 세상에 자랑할 만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전체 인민과 온겨례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서 열린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족의 정기와 슬기가 담긴 민족문화 유산을 옹게 계승 발전시키는데서 우리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우리인민의 애국애족 열의를 앙양시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다그쳐 나아가는데서 매우 의의깊은 계기로 될 것입니다.

조선민족사의 유구성과 찬란함을 온세상에 떨치며 빛내어 주시

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과 조선로동당의 의지를 받들어 본 최고인민회의가 민족문화 유산 계승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온민족의 의사를 반영한 조치라고 인정하면서 위임에 따라 이제부터 민족문화 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계승 강화할데 대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대의원 동지들

민족문화 유산은 민족의 뉘과 슬기의 상징이며 민족 발전의 재보입니다.

조상 대대로 창조되고 전해져 내려오는 민족문화 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켜야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벌어지고 있는 우리시대의 역사적 조건에서 민족문제는 인민대중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동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입장은 민족유산에 대한 입장에서 중요하게 표현되며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곧 민족적 자존심과 민족 제일주의의 중요한 표징으로 됩니다.

자기민족의 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지 못하는 인민은 민족적 자존심도 가질 수 없고 나라의 자주권도 지킬 수 없으며 민족의 발전과 번영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인류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입니다.

민족문화 유산 계승문제를 바로 풀어나아가는 것은 특히 외세에 의하여 근 반세기동안이나 민족분단의 고통과 재난을 겪고있는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의 단일성을 고수하고 민족적 화합을 이룩해 나아가는 데서 중대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의 자주권이 혹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황금만능이 지배하는 남조선에서는 귀중한 민족문화 유산들이 당국의 실제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시로 도난 약탈당하여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남아있는 유적 유물들도 민족의 재부호가 아니라 집권자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남조선 위정자들은 민족문화 유산 연구에서 문화권 이동론을 제창하고 신라 정통설을 유포시키면서 민족문화의 이질성을 억지로 날조 선전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인민들 속에서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족 의식과 혈육의 정을 마비시키고 민족의 공통성을 파괴하며 나라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비극적인 결과를 빚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판이한 대결을 이루고 있는 현 실태는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태도가 곧 애국자와 매국자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며 민족의 단일성을 고수하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전제로 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번

영을 이룩해 나아가는 데서 민족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가 가지는 커다란 의의와 그 사상 정신적 작용을 깊이 헤아리고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몸소 무르익히신 위대한 구상에 따라 해방후 새사회 건설에 들어서는 첫 시기에 벌써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옳게 계승발전시켜 나아갈데 대한 원칙적 입장과 방침을 천명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민족문화 유산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것은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데서 우리당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위대한 방침입니다》

민족문화 유산은 민족의 선형 세대들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물질적 재보입니다.

각이한 시대에 각이한 사회발전 단계에서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민족문화 유산에는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동적이며 보수적인 것도 있습니다.

민족문화 유산은 반드시 그것이 창조되어온 민족의 발전역사와 연관시켜 보면서 그속에 있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정확히 가려내고 주체적 입장에서 옳게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의 근본 사상이며 근본 원칙입니다.

민족문화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공화국

정부의 방침은 주체의 민족관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입니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의 단위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운명을 개척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 각이한 사회발전 단계를 반영하는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물론 민족의 생활 과정에서 창조되는 문화 유산에는 개별적 계급이나 계층의 요구와 이념들을 반영한 문화 유산이 있으며 따라서 그 내용과 가치, 사회적 의의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인 것 만큼 그 어떤 계급과 계층이 창조한 문화 유산도 민족 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문화 유산과 동떨어져 존재하거나 발전할 수 없으며 그것은 민족의 문화 유산을 옹고게 계승 발전시킬 데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영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민족문화 유산을 무시하거나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민족문화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켜 나아갈데 대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확고 부동한 민족 자주사상과 숭고한 애국애족 사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전 로정은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영광스러운 로정인 동시에 참다운 애국자의 빛나는 로정

이며 혁명의 위대한 영도자의 역사인 동시에 민족적 영웅의 역사입니다.

일찍이 혁명활동은 민족해방투쟁으로 부터 시작하였으며 민족의 주체, 혁명의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 과정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영도하시는 전 기간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오시었습니다.

이 역사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온 민족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민족 자주사상과 애국애족 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민족문화 유산 문제와 관련한 온갖 반동이론과 기회주의 조류가 범람하고 있는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편향없이 우리민족의 고귀한 문화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었으며 민족문화 건설의 가장 곧바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숭고한 민족 자주정신과 열렬한 애국애족 사상을 지니시고 조선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을 구원해 주시었으며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어 주시는 민족의 운명이시고 어버이십니다.

대의원동지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민족문화 유산 정책에 의하여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 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고 유구한 조선민족사를 빛내어 나아가는 데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일찍부터 국가시대, 문명시대에 들어선 우리민족은 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랜 역사적 기간 단일민족을 이루고 자주와 창조역사를 수놓아오면서 민족의 녀과 지혜가 깃든 귀중한 민족문화 유산을 남기며 대를 이어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보기도문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비로서 세상에 자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발굴 정리하고 보호하는 사업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사업으로 벌여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빛내이고 민족의 우수성을 온 세상에 떨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발굴 정리하고 적극 보호하는 것은 선조들이 창조하여 놓은 귀중한 문화재부를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주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선행한 역사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우리인민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창조된 유적유물들에서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 사상과 감정, 생활풍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발굴 수집하여 정리 보호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

에 대한 역사교육과 애국주의교양을 생동하게 할 수 없고 민족적 정서와 감정에 맞는 사회주의적 새문화를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발굴 정리하고 적극 보호하는 것은 특히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문화가 흑심하게 파괴되고 약탈당한 사정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이미 임진조국전쟁때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를 수많은 빼앗아간 일제는 1905년에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강점한 이후에도 조선민족 말살책동을 국시로 내세우는데 기초하여 근 반세기동안 조선문화재를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약탈해 갔습니다.

일제가 인민조선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하여 1910년대에만도 수십만권의 옛 책들을 불살라 버렸으며, 조선인민의 애국의 넋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면 옛 건물이건, 성곽이건, 기념비이건 가림없이 모조리 파괴해 버렸습니다.

일제는 또한 우리나라의 이르는곳 마다에서 왕릉을 비롯한 수천기의 고분을 도굴, 파괴하였고 도자기, 고문서, 서화와 같은 유물로부터 돌탑과 같은 유적에 이르기까지 수백만점의 문화유물들을 약탈하여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심지어 일제는 낫그릇, 낫순가락을 비롯한 가정 직물로부터 동종, 불상과 같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금속제의 유물에 이르기까지 총포탄을 만든다는 구실밑에 제대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인민의 민족문화유산은 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에 의하여 또한차례 강탈당한데다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적들이 감행한 무차별적인 폭격에 의하여 거의다 파괴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이러한 실태로부터 민족유산을 발굴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 아직 묻혀있는 것은 찾아내고, 파괴된 것은 복구, 정리하여 잘 관리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을 발굴 정리하는데서 주체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조선사람의 기원문제, 우리 민족의 시원문제가 빛나는 해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고고학자들은 원시 일족에 대한 발굴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 평양일대에서 원인들의 유적을 발굴한데 뒤이어 고인, 신인들의 화석을 발굴함으로써 조선반도가 일부 발상사의 하나이며 조선사람은 명실공히 단일성 민족이라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최근에 단군능이 발굴되어 최신형의 연대측정기구들에 의하여 단군의 유골이 5011년전의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고조선의 신지글자가 발견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하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랜세월 신화적 인물로 간주되어 온 단군이 평양에서 태어나 고조선을 세운 실재한 인물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증이 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혈통을 깨끗이 이어온 슬기로운 민족으로 산수 수려한 평양은 인류의 발상지로, 민족문화의 중심지로 조선민족의 성

지로 온세상에 이름떨치게 되었습니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적 기반,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전통을 이어오면서 곳곳이 살아온 사실은 7천만 우리 동포들로 하여금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정견과 신앙, 재산의 차이에 관계없이 민족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에 대한 성전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고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일대 경사이며,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민족문화 유산 정책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민족문화 유산 정책에 의하여 우리시대에 고구려의 건국시조 동명왕릉과 정릉사 고려 태조 왕건 왕릉이 웅장하게 개건되고 묘향산의 보현사, 금강산의 표훈사, 대성산의 광법사, 개성 성균관을 비롯한 건축 유산들, 고국원왕 왕릉과 강서 세무덤, 덕흥비 고분 등 고구려의 우수한 벽화무덤들, 대성산성, 정방산성을 비롯한 수많은 산성들도 원상대로 복구 개건될 수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민족 문화유산들은 오늘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민족문화유산정책에 의하여 국보로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근로자들에게 문명한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높여주는 중요한 재보로 되고 있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을 발굴 정리하고 적극 보호할데 대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은 이조실록과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민족고

전유산의 번역, 복각분야에서도 빛나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조실록은 이왕조 500년간 18만여일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일지식으로 적은 방대한 역사서로서 원문 권수로는 1763권, 책수로는 근 900책에 달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보 도서입니다.

이러한 이조실록이 오늘 전권이 번역 복각본으로 출판되어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인민의 소유물로 되었습니다.

13세기에 출판된 팔만대장경이 우리시대에 와서 비로서 전부 해제, 정리될 수 있는 것도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고려사의 전문이 번역 복각되고 실학자들을 비롯한 이름난 학자 문인들의 문집들과 고전문학작품들, 동의보감을 비롯한 고려 의학도서들이 수없이 수집 정리 번역되어 근로자들의 역사교육과 정서교양 실효에 이용되고 있는 것도 모두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민족문화유산 정책의 결과입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문화유산을 발굴, 보존, 관리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사회주의 민족문화 건설의 중요한 노선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이 오늘의 우리 인민생활에서 활짝 꽃피나게 하였습니다.

선행 세대가 이룩해 놓은 민족문화유산을 디딤돌로 삼고 그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이어받은 새생활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 때에만 사회주의 민족문화가 성과적으로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은 문

화발전의 일반적 법칙이다.

우리 인민은 문화건설에서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적 폐단을 다 같이 배격하고 주체성의 원칙과 노동계급성의 원칙, 역사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으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가 문화건설분야에 커다란 해독을 기치고 있던 것처럼 복잡한 시기에도 우리 혁명의 이익에 맞고 인민의 생활감정과 범위에 맞는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민족문화유산정책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민족배타주의적 사대주의적 사가들에 의하여 왜곡되었던 그때 중세의 역사가 주체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혀지고 체계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원시사회 사회의 전모가 밝혀지고 고조선 중심의 고대사와 고구려 중심의 중세사체계가 확립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문제와 부르조아 개혁운동에 관한 문제를 비롯한 군대사의 근본문제가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었습니다.

주체의 역사총서인 「조선전사」 전 340권이 편찬되어 조선역사가 자체적으로 정립되고 이어 철학, 경제학, 문예와 언어학을 비롯한 각부문의 역사가 과학적으로 체계화되어 출판된 것은 민족문화유산 계승 발전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귀중한 성과로 됩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올바른 민족문화유산 정책에 의하여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우리민족의 우수한 유산들이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름 금수강산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은 남달리 고상한 미감과 슬기와 지혜를 지니고 민족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찬란히 발전시켰으며, 이 과정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민족예술의 형식을 수많이 창조하여 동방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의 문화와 예술이 마땅히 조선적인 것을 바탕으로하여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선조들이 남겨놓은 문화예술의 유산을 주체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문예건설노선을 일관하게 관철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민족문화예술은 조선의 녀이 뚜렷하고 조선의 기상이 나래치며 민족적 향취가 풍기는 주체의 문화예술로 활짝 꽃피어나고 우리 시대의 문화예술이 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와함께 건축분야에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 결합된 주체의 건축예술이 발전하여 대기념비적 건축물이 수많이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조선전래 미풍양속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어 오늘 우리사회에 건전하고 아름다운 도덕생활미풍이 차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하나의 핏줄을 이어받은 단일민족으로서 한 강토에

서 언어와 풍습을 같이 하면서 역사적으로 화목하게 살아 왔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며 재물이나 권력보다 진리와 도덕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이어내려오고 있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입니다.

우리 인민이 장구한 역사적 기간에 거쳐 키워왔고 대대손손 물려온 이 순결하고 깨끗한 도덕성, 미풍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조선로동당의 인민적 정책에 의하여 주체시대 인민들의 도덕적 생활풍습으로 계승 발전되었으며 온 사회에 일심단결의 귀중한 민족적 바탕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사람들을 것처럼 경탄시키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과 온 사회에 차 넘치는 숭고한 공산주의 미풍은 바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수한 민족전통을 중요한 바탕으로 하나로 삼고있는 것으로 하여 비길데 없이 순결하고 진실한 것이며 그 무엇으로서도 끊을 수 없는 민족의 혈연적 유대의 발현으로 되는 것입니다.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이 민족의 녀과 슬기와 재능을 이어나가게 하는 생명선이라면 우리의 사회주의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짝 꽃피워 주는 터전입니다.

세계적인 대 정치 풍파속에서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복귀한 나라들에서는 민족의 정신과 슬기가 깃들어 있고 민족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귀중한 민족문화 유산들이 상품화되어 해외로 유

출되거나 무참히 파괴되어 있으며 민족의 자존심과 조국애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에서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들이 날이 갈수록 생기를 띠고 민족의 정기를 뿜고 있으며 사람들속에서 애국애족의 정신을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는 분야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것을 뚜렷히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대의원동지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고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어 나가는데서 이룩된 모든 자랑스런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세련된 영도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수하고 풍부한 민족문화유산도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가 없이는 빛을 뿌릴 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오랜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셨을 뿐 아니라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시종일관 선조들이 이룩한 민족문화 유산을 나라와 민족의 재보로 귀중히 여기고 옹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하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찍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

시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벌여나가시던 시기에 일제 침략자들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이 파괴, 약탈당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파 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을 우리의 인민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아끼고 사랑하며 원썬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 후 건당 건국의 위업을 수행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도 민족문화유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문화유산발굴, 보호 관리를 위한 법과 규정들을 제정 실시하게 하시었으며 문화유적과 유물들을 조사 발굴하고 복원보존하는 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으로 벌여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귀중한 문화유산물들을 안전지대에 소개하도록 조치를 취하시어 원썬들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파괴, 약탈 만행으로부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도록 하시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국보인 이조실록을 구출하기 위하여 일꾼들에게 친히 존함이 새겨진 신임장까지 안겨주시고 온갖 조건을 보장해 주시었으며 전쟁 전기간 최고사령부 집무실에 귀중히 보호하여 주시고 번역, 복각하도록 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영도는 우리인민의 가슴속에 애국주의의 숭고한 념을 안겨주는 감동적인 화폭으로서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잿더미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일떠서야했던 전후 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도 귀중한 자재와 자금을 돌리시어 파괴된 문화유적을 복구하게 하시었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을 민족의 향유물로 사회주의문화 건설의 밑천으로 되게 하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오랜 역사적 기간에 이룩된 귀중한 문화재들이 광범히 발굴되고 나라와 민족의 재보로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비로서 실제한 인물로 발굴 고증되어 반만년의 민족사를 되찾게 된것도 민족문화유산을 발굴 보전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와 노고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구월산과 묘향산에 깃든 단군전설과 강동군의 단군능에 관한 자료를 몸소 요해하시고 단군능 발굴을 발기 하셨으며 단군능 발굴사업이 진행되어 그 자료들이 과학적으로 고증된 이후에는 몸소 단군능을 찾으시어 발굴된 유물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우리학자들과 일군들이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이름난 국가 지도자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해박한 자식을 가지시고 그것을 나라와 민족의 재보로 여기고 순결하게 이어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영도자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이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이

사업에서 주체적 입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관철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당은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부문에 역량이 튼튼히 꾸려지고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었습니다.

우리당의 조치에 의하여 이 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박물관들이 유능한 일군들로 꾸려지고 연구사업을 현대화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후비들을 전망성있게 키울 수 있는 정연한 양성체계가 세워졌습니다.

방대한 조선전사편찬사업과 이조실록 번역사업이 매우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연구사업이 현대 과학의 토대위에서 진행되게 된 것은 이 분야의 연구 역량을 꾸려주고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준 우리당의 영도를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당은 또한 민족문화 유산을 조사 발굴하고 복원 정리하며 보존계승하기 위한 사업체제를 중앙으로부터 각도 시군에 이르기까지 정연히 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이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전사회적, 전군중적 사업으로 진행되게 하였으며 나라의 모든 민족문화유산을 철저히 국가가 책임지고 발굴하고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에서 이룩된 모든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와 끊임없는 고귀한 결실입니다.

대의원 동지들!

오늘 우리 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
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문화유적과 유물들을 옛모습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우리인민이 이룩해놓은 문화유산들이 민족문
화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민족문화 유적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는 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를 바로 정립하고 완성하여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세상에 떨치며 우리 인민의 지향과 정서
에 맞는 사회주의 민족문화를 훌륭히 건설하기 위한 주요한 요구
이며 칠천만 겨레의 민족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통일열기를
더한층 고조시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입
니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 인민이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입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체인민이 민족유산에 대한 문제와 단순히 학술상의 문
제이거나 선조들이 창조한 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실무적 문제가 아
니라 자주시대의 기본 요구와 민족자주노선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

적 문제이며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관련된 민족사적 과제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사회적 관심과 근로자들의 주인다운 자각을 높이고 그것이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발굴 수집 정리하고 그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여야 합니다.

최근 당군능 발굴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고대 국가와 문화의 발상지이며 중심지인 평양일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며 역사 유적과 유물에 대한 조사사업과 수집정리 사업을 광범위 진행하여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과 민족의 단일성, 문화의 우수성을 논증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사회적 운동으로 전설을 비롯한 민족문화유산 수집사업을 활발히 벌여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을 발굴 수집 정리하는 사업과 함께 그에 대한 연구사업을 적극 벌리고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민족문화유산을 연구하는 과학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연구사업을 현대화하며 당면과제와 전망과제를 정확히 설정하고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끊임

없이 심화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과학연구사업이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찾아내고 문화유적과 유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며 그것을 주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 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을 옹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을 보전 및 보존 관리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 관리하는 사업은 민족의 재보를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며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빛내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문화적 재부들 가운데에는 세계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하는데 기여한 가치있는 창조물이 많습니다.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고 민족의 넋과 기상이 스며있는 창조물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잘 보존하여야 우리의 문화 전통의 우수성과 민족의 존엄을 떨칠 수 있습니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양사업과 사회주의 문화건설에 효과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유적 유물을 비롯한 민족문화 유산들을 보존하고 잘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고 이미 세워진 보존관리사업체계가 더욱 큰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정권기관들은 전문과학연구기관과의 협의 밑에 문화유산 가운데서 중요한 대상부터 먼저 보존하며 역사적 사실과 시대사에 맞지않게 현대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하

겠습니다.

우리는 정신문화유산을 보전 관리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없는 것은 찾아내고 손상된 것을 되살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 의하여 왜곡되었거나 잘못 평가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계속 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 보존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물질기술적 보장사업을 따라 세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역사 유적과 유물을 알뜰히 보호 관리하기 위한 전사회적 기풍을 확립하며 그와 관련된 국가의 법과 규정들을 제정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을 옹게 계승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민의 우수한 전통적 민족 풍습을 주체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민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창조한 고유한 민족생활풍습과 생활양식은 현시대의 요구와 우리인민의 지향과 정서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귀중한 재보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우리민족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주체적 입장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식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활짝 꽃피 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을 옹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 유산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을 키워주며 우리 조국의 미래인 새세대들을 참다운 애국자로 키워나가는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민족사 교육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 완성하고 그 질을 높이며 역사적 물건들과 문화유적을 잘 꾸리고 그에 대한 창건사업을 널리 조직하는 것과 함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적극 소개 선전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우리민족의 자랑찬 역사와 찬란한 문화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 유산을 더욱 빛내여 나가며 사회주의 애국주의정신과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깊이 간직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민족문화 말살책동과 부르조아적 사상문화 침투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것은 민족문화 유산을 옹고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지난날 우리인민에게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들씌우려는 민족문화말살책동을 감행하여 온 일제 침략자들을 비롯한 외래 제국주의자들은 오늘에 와서도 날로 높아가고 있는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의 민족문화를 왜곡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응당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들의 민족문화 왜

꼭 말살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사상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이 일시적으로 갈라진 것을 기회로 우리 인민의 슬기롭고 유구한 민족문화 유산을 영원히 둘로 갈라 놓으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책동을 짓부시고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연구하며 민족의 번영과 통일 위업에 유익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감행하는 부르조아사상문화의 침투를 철저히 막고 우리민족 유산과 전통적 생활기풍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해야 하겠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를 높이 받들고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를 더욱 빛내이고 민족문화 건설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당의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고수하며 대를 이어 꽃피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 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

기 위한 사업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와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개막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회의는 계속됩니다.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
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
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
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1990
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綜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一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
域 協力の 發展方向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資 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統一情勢分析 93-09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3년 12월 일

發行日 1993년 12월 일
